

초등학교 교과서 다시 쓰자

권오운

시인

지난 7월, 보잘것없는 내 책, 『알 만한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는 우리말 1234가지』가 출간되었을 때 내 입방아에 오른 많은 작가와 언론매체 종사자들 중 몇몇은 내게 거센 항의의 게거품을 물었다. 그 전말의 일단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말인데 뭐 어떡다는 거냐?’는 식의 소박한 푸념이었다. 개중에는 “말 나고 표준어 났지, 표준어 나고 말 났느냐?”는 우격다짐도 있어서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꼬집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펴낸 교육부에서는 입때껏 가타부타 반응이 없다. 오죽했으면 “교과서 청문회라도 열자”고 했으랴! 그런데도 입 다물고 있기에 그 일부를 다시 한번 도마에 올린다.

멋대로 떼어낸 사이시옷과 비표준어들

‘아래+방→아랫방, 나무+잎→나뭇잎, 배+사공→벳사공...’처럼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 덧쓰는 ‘시’이 바로 ‘사이시옷’이다. 이 사이시옷이 붙는 너댓 가지의 규정이 맞춤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음

은 익히 아는 바다. 여러 경우 탓인지, 맞춤법에서 이 규정보다 일반에서 두루 헛갈려 쓰이는 경우도 드물다.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교 교과서는 사잇소리 현상을 보이는 합성명사 가운데서 기연가미연가하다고 생각되면 아예 사이시옷을 멋대로 떼어내 버렸다.

2-(가) 『수학』 35쪽을 비롯, 3-1 『수학』, 3-1 『수학 익힘책』, 5-1 『수학』, 5-1 『수학 익힘책』 등에서는 ‘꼭짓점’을 ‘꼭지점’으로, 1-1 『읽기』 36쪽을 비롯, 1-1 『말하기·듣기』 26쪽, 2-1 『즐거운 생활』 14쪽, 6-1 『사회』 91쪽 등에서는 ‘노랫말’을 ‘노래말’로, 6-2 『읽기』에서는 ‘혼잣말’을 ‘혼자말’로, 또 5-1 『말하기·듣기·쓰기』 78쪽에는 ‘시곷바늘’을 ‘시계바늘’로, 5-1 『읽기』 108쪽에는 ‘등꽃길’ ‘하꽃길’을 ‘등교길’ ‘하교길’로 하는 등 그 예는 수도 없다.

오자(誤字)도 많고, 비표준어를 쓴 곳도 수두룩하다.

‘깨끗이가’ ‘깨끗히’로(6학년 『체육』 14쪽), ‘밤을 새우다’를 ‘밤을 세우다’로(5-2 『사회』 58쪽), ‘윤희’를 ‘윤희’로(2-2 『말하기·듣기』 37쪽), ‘마음이 설립니다’를 ‘마음이 설레입니다’로(3-1 『도덕』 5쪽), ‘눈알을 뒤룩뒤룩 굴리며’라고 해야 할 것을 ‘눈알을 데룩데룩 굴리며’로(6-1 『읽기』 167쪽), ‘(금줄에 끼우는) 생솔가지’를 ‘솔가지’로(6-1 『읽기』 142쪽), 또 ‘공룡의 자귀’라 해야 할 것 같은데 ‘공룡의 발자국’으로(6-2 『읽기』), ‘아까시나무’를 ‘아카시아’로(5-1 『읽기』 113쪽), ‘창란젓’을 ‘창란젓’으로(5-1 『사회과 탐구』 17쪽), ‘시각을 나타내는 기계’를 ‘시간을 나타내는 기계’로(6-2 『읽기』)하는 등 더 주위섬기기가 숨이 찰 지경이다.

“...벼메뚜기들이 후드득거리며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벼메뚜기가 사람의 발자국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5-1 『읽기』 66쪽에 나오는 글이다. 세상에 ‘발자국소리’라는 말이 어디 있는가? ‘발자국’이 소리를 낼 수는 없다. 당연히 ‘발소리’여야 한다.

1-1 『즐거운 생활』 46쪽에는 “가족놀이에 필요한 놀잇감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글이 나오는데, ‘놀잇감’은 ‘장난감’의 잘못이다. 5학년 『실과』와 6학년 『미술』에는 ‘비닐피복전선’이란 말이 나온다. ‘비닐’은 비닐이고, ‘전선’은 전깃줄이다. 그럼 ‘피복’은 무엇인가? 바로 ‘거죽을 덮어씌우다’라는 뜻의 ‘被覆’이다. 참으로 한심하다. 당연히 이미 순화되어 있는 ‘입힘줄’(비닐 입힘줄)이어야 옳다.

훌륭한 우리말 두고, 왜 억지말 쓰나?

6-2 『읽기』 161쪽에는 곰곰이 생각할수록 회한한 ‘쇠자막대기’라는 말이 나온다. 세상에 이런 해괴한 말은 아마 처음 들을 것이다. ‘쇠로 된 긴 막대기’에 눈금을 새겨 넣은 ‘자’를 이르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쇠자막대기’가 아니라 ‘쇠막대기자’가 옳다. ‘막대자식’ ‘막대그래프지’ ‘자식막대’ ‘그래프막대’가 아니듯이 말이다.

5학년 『실과』 69쪽에는, 삶은 달걀을 건지기 위하여 ‘건지기’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건지기? 웃음이 절로 나온다. 철사로 그물처럼 엮어 바가지같이 만들어 긴 자루를 달아 튀김할 때 튀겨진 음식물을 건져내는 기구는 ‘건지기’라 하지 않고 ‘석자’라 한다.

3-1 『읽기』 10쪽에는 ‘몽클몽클 웃는다’는 표현이 나온다. 도대체 어떤 감정의 웃음인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것도 ‘기분이 좋아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더욱 아리송하게 만든다. 아무리 의성어·의태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엮비슷하게 만든다고 다 말이 되는 것이 아니다.

1-2 『생활의 길잡이』에는 알기 쉬운 우리말을 놔두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이해가 어려운 한자말만 골라 쓰고 있다. ()속은 내가 고쳐 놓은 것이다.

4쪽 ‘바른자세로 앉아’ (바르게 앉아), 6쪽 ‘수도를 사용한 후에는’(수돗물을 쓰고 나면), 9쪽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고 싶을 때’ (화장실을 급히 가고

싶을 때), 47쪽 '폐식용유는 활용해서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쓰고 난 식용유로는 비누를…)

4-1 『자연』과 『실험관찰』에는 '철가루'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단어를 만들어 썼는지가 자못 궁금하다. 한자말을 쓰려면 차라리 '철분(鐵粉)'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쉬운 우리말로 '씻가루'라 해야 한다. '철분 시멘트'를 북한에서는 '철가루 시멘트'라 한다던가?

“주먹야구는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으로, 공격편과 수비편으로 이루어 집니다. 공격편은 투수가 던진 공을 주먹으로 치고 수비편은 공격편이 친 공을 잡아 처리해야 합니다.”

5학년 『체육』 45쪽에 나와 있는 설명이다. 결론부터 말해서 '발야구'는 있으나 '주먹야구'라는 경기는 없다.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은 '짬뽕'라는 경기이다.

4학년 『실과』 113쪽에 나오는 '덧소매'는 '토시'로 바뀌야 마땅하고, 5-1 『사회과 탐구』 108쪽에 나오는 '등거리'는 '등등거리'로 고쳐야 한다. '등나무로 만든 등거리'이기 때문이다. 4-2 『읽기』 40쪽에는 '질그릇 시루'라는 말이 나온다. '질그릇을 만드는 흙'이 '질' 또는 '질흙'이다. 그래서 이 질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은 그 그릇 이름 앞에 '질~'을 붙여 부른다. 질가마, 질냄비, 질동이, 질자배기, 질탕관, 질항아리, 질화로 등과 같다. 따라서 '질그릇 시루'가 아니라 '질시루'여야 한다.

불분명하고 부적절한 표현 수도록

“(오늘날은)우리 어른들이 어렸을 때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물건들이 설새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소식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5-1 『읽기』 148쪽에 있는 글이다. 신문·방송에서도 흔히 잘못 쓰이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구의 반대편’이다. ‘지구의 반대편’이 도대체 어디인가? ‘한국의 반대편’이라면 몰라도 ‘지구의 반대편’은 이 지구상에는, 아니 우주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5-1 『사회』 58쪽, 5-1 『사회과 탐구』 52쪽 등 ‘지구의 반대편’이 판을 친다.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2-2 『생활의 길잡이』 78쪽에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화’ 자체가 ‘이야기를 주고 받음’이기에 다시 ‘나눈다’고는 하지 않는다. ‘대화하다’라야 한다.

같은 책 49쪽에는, 지하철을 탈 때에는 ‘안전선 밖에서 기다립니다’ 라고 되어 있다. 한심하고도 한심하다. 이 교과서 주무른 양반들은 지하철도 안 타 본 모양이다. 우리나라 어느 곳의 지하철에서도 ‘안전선 밖에서 기다리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적절한 표현이 못 된다 (‘안전선 밖’은 ‘안전하지 않은 곳’이므로) 하여 쓰지 않은 지 오래 되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초등학교 다른 학년 교과서에 소개까지 되어 있다.

“고사리 대사리 끊자 나무 대사리 끊자/(…)앞동산 고사리 끊어다가
우리 아빠 반찬하세”

5학년 『음악』 6쪽에 나오는 동요이다. 고사리나 고비는 ‘끊는다’고 하지 ‘끊는다’고는 하지 않는다. 아무리 전래 동요라고는 해도 이런 일상생활 용어는 고쳐 주어야 한다.

“의사 선생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민기가 쓴 낱말을 살펴봅시다.

‘하얗다, 무섭다, 병원, 소독약, 간호사, 약, 아프다, 치아…’

1-1 『쓰기』 82쪽에 나오는 글이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나 ‘이빨’이

라고 하지 않고 과연 '치아'라고 했을까?

1-(가) 『수학』 92쪽에는 “꽃감은 한 줄에 몇 개씩 꿰어 있는지 알아보시오”라는 대목이 나온다. 꽃감이 ‘꿰어 있는’ 것은 ‘줄’이 아니라 ‘꼬치’이다.(실제 그림도 꽃감 꼬치가 그려져 있다.) 따라서 “꽃감은 한 꼬치에 몇 개씩…”가 되어야 한다.

2-1 『생활의 길잡이』 16쪽에서 29쪽까지에는 ‘정리’라는 단어가 25번, ‘정리정돈’이 15번이나 나온다. 아무리 ‘정리정돈’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14쪽 내에 같은 말을 40여 번이나 되풀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리고 뭐고 아이들이 그만 질려버리고 말 것 같다. (1-2 『쓰기』 41, 61쪽에는 각각 ‘간단하게 적어 봅시다’해야 할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봅시다’로 해 놓았다.)

또 같은 책 42쪽에는 “몽당연필도 버리지 않고 깍지를 끼워 씁니다”라며 볼펜 꺾테기에 몽당연필 끼운 그림을 함께 싣고 있다. 그러나 ‘깍지’라는 말이 ‘알맹이를 까낸 꺾질’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바로 ‘볼펜 꺾테기’를 이르는 않는다. 당연히 “다쓰고 난 볼펜 꺾테기에 끼워 씁니다.”라고 해야 한다.

역시 같은 책 85쪽에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말벗을 해 드립니다.”란 글이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벗’은 ‘해 드리는’것이 아니라 ‘되어 드리는’ 것이다. 또 100쪽에는 “물은 끓여 먹고, 음식은 익혀서 먹습니다.”라는 대목이 있다. 세상에 ‘음식 익혀 먹으라’는 얘기는 난생 처음이다. 모든 음식은 대부분 조리를 통해 익혀진 것이 아닌가! ‘날것은 익혀 먹으라’면 또 몰라도.

‘반쯤 완성된 벽화’와 ‘낡은 그릇’

2-1 『바른 생활』 83쪽에는 “이웃에게서 피해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하였는지 말해 봅시다”라는 글이 나온다. ‘피해를 받았다’는 표현이 어색하기 짝이 없다. ‘피해’ 자체가 이미 ‘손해를 입음’이다. 일반적으로는 ‘피해를 보았다’

고들 하나 내 생각에는 그것도 썩 좋아 보이는 표현은 아니지 싶다. '피해'는 그저 유무(有無)나 크고 작음만 가려 주면 된다.

1-1 『생활의 길잡이』 41쪽에는 “손을 물로 깨끗이 행굽니다”라는 글이 나온다. 얼핏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이 글도 찬찬히 뜯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손을 ‘행구려면’ 반드시 ‘~에’ 행구는 것이지 ‘~으로’는 행굴 수가 없다. 따라서 ‘물로 행구는’ 것이 아니라 ‘물에 (손을) 행구는’ 것이다. 한마디로 문장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더욱 놀라운 대목은 1-1 『슬기로운 생활』 71쪽에 나온다.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하여 봅시다.”라면서 사진으로 약·건조제·세제 등을 나열해 놓았다. 물론 약이야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임에 틀림없으나, 건조제나 세제는 어디 잘 살펴서라도 먹기나 할 수 있는 것인가!

4-1 『생활의 길잡이』 48쪽에는 ‘납은 그릇’이라는 단어가 세 번씩이나 나온다. ‘노인이 줍쌀죽을 납은 그릇에 담아 내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릇을 ‘납았다’고는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여기 나오는 그릇은, 종이나 형질 같은 것으로도 만들 수 있는 반질고리도 아니고(그렇다면 ‘납았다’고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줍쌀죽을 담았으니 놋그릇이나 사기그릇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그릇의 어떤 상태를 두고 ‘납았다’고 한 것일까? 놋그릇이 때가 끼고 닦지 않아 얼룩이 저 있거나, 사기그릇의 이가 빠진 것 같은 경우라면 ‘납은 그릇’이 아니라 ‘헌 그릇’이다.

같은 책 99쪽에는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나온다. “벽화가 반쯤 완성될 무렵”이란다. ‘반쯤’인데 어찌 ‘완성’인가? “벽화가 반쯤 그려졌을 무렵”이어야 한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